

제382회 국회(정기회) 국정감사
국토교통위원회

업 무 현 황

2020. 10. 15

목 차

I . 일반현황	1
----------------	---

II . 중점 추진계획	3
--------------------	---

1. 국가철도망의 효율적 구축으로 철도 공공성 제고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철도 구현	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 철도시장 적극 진출	1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4. 철도자산 활용도 제고로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...	1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5.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	15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I 일반 현황

1. 연 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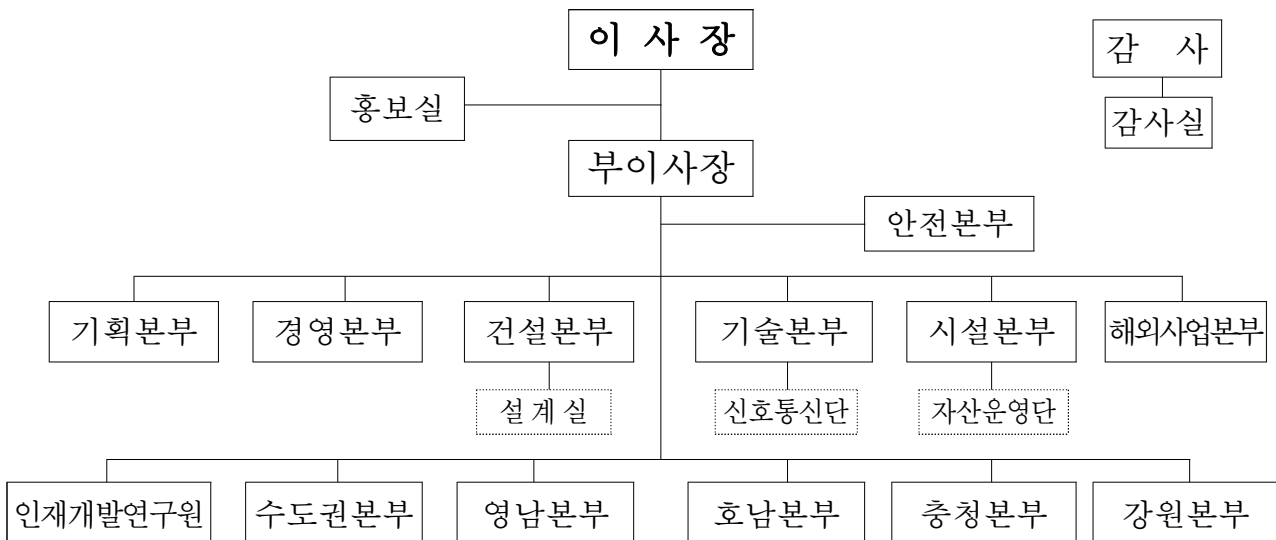
- '03. 7.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(공단 설립근거) 제정·공포
- '04. 1. 1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
 - * 철도청 건설·시설부문 +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
- '20. 9.10 기관 명칭 변경(한국철도시설공단 → 국가철도공단)

2. 주요임무

- 고속·일반·광역철도 등 국가철도망의 건설 및 관리
-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개발 및 지원
- 해외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
- 역세권 및 철도 연변의 개발·운영

3. 조 직

- 정원 2,077명, 7본부 / 1실 / 2단 / 1원 / 5지역본부



4. '20년 예산·재무 현황

○ 예산현황

(억 원)			
구 분	'19 예산 (A)	'20 예산 (B, 추경포함)	전년 대비 (B-A)
총 계	83,830	92,241	8,411
▪ 국 고	41,696	47,377	5,681
▪ 자체조달	42,134	44,864	2,730
- 사 업 비	53,654	61,011	7,357
• 고속철도	853	1,077	224
• 일반철도	26,580	23,871	△2,709
• 광역철도	4,381	4,939	558
• 수탁공사	1,188	1,922	734
• 시설개량	9,515	16,786	7,271
• 유지보수비	8,931	10,062	1,131
• 기타사업	2,206	2,354	148
- 관 리 비	2,064	2,348	284
• 인 건 비	1,504	1,607	103
• 경상경비 등	560	741	181
- 차입상환 및 세무경비	28,082	28,882	800
- 예 비 비	30	0	△30

○ 재무현황

구 분	규 모	비 고
자 산	18조 8,060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속철도 시설관리권 ▪ 호남·수도권 고속철도 이관 전 유형자산
부 채	20조 3,303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속철도 자체 투자(경부·호남 50%, 수도권 60%) ▪ 선로사용료 회수부족에 따른 부채

Ⅱ 중점 추진계획

VISION

국민을 잇는 철도, 세계를 여는 철도

한반도
통합철도망 구축

국민안심
철도안전체계 강화

미래성장동력 확보

사회적 가치 창출

CORE VALUES



중점 추진과제

- ◇ 국가철도망 효율적 구축으로 철도 공공성 제고
- ◇ 안전체계 혁신으로 편리하고 신뢰받는 철도 구현
- ◇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 철도시장 적극 진출
- ◇ 철도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◇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

1. 국가철도망의 효율적 구축으로 철도 공공성 제고

1.1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철도노선 구상

①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효율적 국가철도망 구현

- 신규 철도노선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'21~'30) 반영
 - * 지자체 건의 철도사업(169건) 적합성 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등
- 새로운 철도편의 발굴 등 평가체계 개선으로 철도투자확대 기반 마련
 - *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(국토부) 및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(KDI) 개정 추진
- 수색~광명(고속철도), 문경~김천(단선철도) 등 예타사업(6개) 경제성 확보
 - * 호남선(가수원~논산) 고속화, 과천선 급행화, 제2경인선, 새만금항인입철도 등

②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철도중심 환승체계 및 광역망 확충

- 철도-도로 효율적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전략 마련('20~'21)
 - * 환승시설 개선, 신 교통수단(개인·공유 모빌리티 등) 연계 등 철도이용 편의성 강화
- 광역간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광역급행 등 철도사업 지속 발굴('20~'21)
 - * 통행시간 30분대 단축, 환승시간 30% 감소 목표 등

③ 동해선 연결 추진 등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지원

- 동해북부선 강릉~제진 사업(예타면제) 기본계획 수립 지원('20.12)
 - * 향후 남북철도 연계운행 대비 경의선, 경원선 등 국내 선로용량 분석 등 병행
- 정부의 동아시아철도 국제포럼 구성 적극 지원
 - *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포럼 설립 및 국제행사 지원, 공동연구 시행

1.2

개통 및 신규 사업 집중관리로 국가철도망 적기 구축

① 개통예정 사업(8개)은 종합시운전 등 제반 규정 준수 안전하게 개통

- (일반철도) 원주~제천(44.1km, 12월) 복선전철 등 7개 노선
 - * 문산~임진강 전철화(6.0km, 3월), 울산신항(9.3km, 9월), 대구선(27.7km, 11월), 장항선 개량2단계(남포~간치 14.2km, 12월), 익산~대야(14.3km, 12월), 군장산단(28.6km, 12월)
- (광역철도) 수원~한대앞(19.9km, 9월) 개통으로 수인선(52.8km) 완전개통

② 개통 임박('21년 예정) 사업은 전기, 건축 등 후속 공정 차질없이 추진

- (일반철도) 부산~울산(37.3km) 등 5개 사업 공정관리 철저
 - * 울산~신경주 복선전철(42.7km), 영천~신경주 복선전철(20.4km), 이천~충주 단선전철(53.9km), 임진강~도라산 전철화(3.7km)
- 개통 일정에 맞춰 검수설비 등 차량정비시설 적기 확충
 - * 청량리·영주·순천차량사업소 및 안동·부전·진주역 정비시설 확충
- (광역철도) 진접선(14.9km) 및 2개 민자사업 집중 관리
 - * 대곡~소사 복선전철(18.4km), 부전~마산 복선전철(32.7km, 조기 복구 지원)

③ 신규사업 설계·공사 적기 착수를 통한 보편적 철도교통 서비스 제공

- 춘천~속초 단선전철('20.6, 8개 쏜공구) 및 경부고속 평택~오송 2복선('20.12) 사업은 T/K(설계·시공일괄) 입찰공고 등 사업 착수
- 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(2개 공구)은 실시설계 추진('20.7)
- 호남(고막원~목포) 및 인천발·수원발 KTX 설계 완료 및 착공('20.12)

1.3

고품질의 철도건설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

①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망을 속도감 있게 확충

- 삼성~동탄 광역급행(39.5km), 대구권 광역철도(61.9km)는 '23년 개통 목표로 노반, 건축 및 궤도 분야 순차적 추진
-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
 - GTX-A(46.1km) 23년말, 신안산선(44.7km) 24년 개통을 목표로 터널 굴착 등 본격 공사 시행
 - GTX-C(22→21년말), GTX-B노선(23→22년말)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착공
 - * GTX-C노선은 금년 11월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준비

② 본격 건설 중인 일반철도망 확충사업 차질없이 추진

- 도담~영천 복선전철(145.1km, '22년 개통)은 임청각 복원사업을 위해 단양~안동(82.2km) 구간 우선 개통('20.12)
- 서해선 복선전철(90.0km, '22년 개통), 보성~임성리 철도건설(82.5km, '22년 개통) 등 본격 시공 중 6개 사업은 궤도, 건축, 전기 등 후속분야 추진
 - * 포항~삼척 철도건설(166.3km, '22년), 도담~영천 복선전철(145.1km, '22년), 동두천~연천 복선전철(20.87km, '22년), 충주~문경 단선전철(39.3km, '23년)

③ BIM기반 철도건설관리 고도화 및 명품역사 건설 추진

- 철도사업 설계시 BIM(3D 설계) 전면 적용('20.5~)
 - 기반구축 TF 운영 및 대전북연결선 등 신규 설계 시 BIM 적용
 - *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: 3차원 모델링 설계로 유지보수 단계까지 연계 적용
- 건축기획 · 심의 프로세스 강화로 명품역사 설계 및 공공가치 향상
 - * 건축기획 표준안,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마련('20.6)
- 철도 역사(연면적 1,000㎡ 이상)에 친환경 제로에너지 설계 적용

2.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철도 구현

2.1 안전체계 고도화 및 안전 중심의 철도현장관리 강화

① 철도 안전관리 수준진단 등 사고 근절 개선방안 마련

- 철도안전체계 진단을 통한 “안전관리 추진전략” 수립(‘20.7)
 - * 안전체계 재정립, 시설관리자로서 역량강화 등 '25년까지 단계별 추진
- 개통노선 장애 유형별 분석을 통한 설계·시공 분야 안전기준 개선
- 제2 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및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추진
 - * 안전체험, 관제센터를 오송에 설치, 종합시험선로와 함께 철도안전 클러스터 구상(‘20.10)

② 철도 운행선 취약구간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

- 석회암 지대를 통과하는 고속철도 지하구간(장성 등 4개소) 전수 조사
 - * 공단·공사·전문가 정밀조사(‘20.2월) 결과 특이사항 없으나, 공동발생 여부 등 지속 관리 추진
- 지하 철도구조물 상부의 침하, 공동 등에 대한 일제 조사 착수(‘20.12)
 - * 지표투과레이더(GPR)를 이용하여 505개소(81km) 조사 추진
- 지능형 건널목 도입, 노후 고가차도 개선 등 도로횡단 안전성 확보
 - * 경부선 신안건널목 등 5개소에 레이저빔, 홀로그램 기술, 열차접근정보 안내 등 적용
 - * 지자체에 이관된 철도횡단 노후 고가차도(68개소) 중 금년 18개소 개선비용 우선 지원

③ 안전 취약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

- 중점점검 항목(7개) 선정 및 경영진 현장점검 등 안전활동 내실화
 - * 2인 1조 작업, 작업휴식제도, 일체형 작업발판,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사용 등
- 가상현실(VR) 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(‘20.11)
 - * 시공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공기술 향상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

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시설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

-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(~'21.6)
 - 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GIS DB 및 관리이력 DB화 집중 추진
 - * 관련규정/사용자 매뉴얼 정비, 운영인력 확보 등 '21년 운영 준비
- 인력위주 유지보수에서 첨단장비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
 - 소형다짐장비 등 유지보수장비 도입을 통해 효율성 및 품질 향상
 - * '20년 소형다짐장비, 레일연마차 등 신규계약 9대 / 선로점검차 등 제작관리 15대

② 사고예방 강화 등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

- 안전조끼, 열차접근 알람 등 스마트 장비를 철도건설 현장 확대 적용
 - * 에어백 안전조끼, 추락위험접근경보장치 도입(위험지역 및 안전고리 미체결 시 경보)
 - * 개인별 열차접근 알람 장비(안전모, 무전기) 전라선 시범도입('20.11)
- 사물인터넷(IoT)을 활용, 교량·경사면 등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
 - * 시범사업(서원주~횡성 11km) 추진을 위한 설치기준 마련 등 기본구상('20.8)
-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(LTE-R) 조기 구축으로 스마트 통신기반 확보
 - * 정부의 통합 공공망과 연계 구축하여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

③ 철도분야 혁신 및 역동성 확산을 위한 디지털 · 그린뉴딜 추진

- “철도 인프라 디지털화 · 스마트화” 등 추진 과제 발굴
 - * 철도분야 뉴딜 추진 TF 구성 / 3대분야 34개 세부추진계획 수립('20.9)
- “철도 디지털 전력계통망 구축” 등 8대 중점과제 선정
 - * 철도산업 혁신, 국민 체감 등 변화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중점 추진

2.3

안전을 우선으로 선제적 철도시설개량

①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중장기 안전투자계획 고도화

- 노후 철도시설 중장기('21~'25) 투자전략 수립('20.6)
 - 철도시설 개량기준 재정립을 통한 세부 투자계획 마련 추진
 - * 국토부 「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」('20.10)에 반영 추진

② 경부고속 1단계 철도시설 전면 개량 추진

- 안전한 KTX 열차운행을 위한 단계적 개량방안 마련('20.12)
 - * 궤도·전차선로·신호통신 분야 등 총 2조 159억원 소요 ('18~'34년)
- 배전선로(천안~대전 70km) 등 개량이 시급한 시설물 우선 추진
 - * 광명~동대구 간 CCTV카메라(183대) 및 배전선로 등 개량(~'25)

③ 수도권 광역철도 등 노후 전기설비 집중개량 시행

- 분당선 및 일산선 구간 전차선로, 신호설비 등 전면 개량 추진
 - * 차단작업시간 추가 확보 및 분야간 인터페이스 조정 등으로 조기 개량('20.6~'22.12)
- 구로 철도교통 관제센터 관제설비 및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고도화
 - * 데이터 고속처리, 보안강화, 인적오류 예방 등 성능개선 및 용량 포화 해소('20.7~'23.7)

④ 교량, 터널,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내진성능 강화

- 강화된 내진설계기준(교량 '18.12, 건축물 '19.3)을 반영하여 철도시설물(5,237개소) 성능평가 및 단계적 보강 추진
 - 내진성능평가(652개) 및 보강 설계·공사(54개) 진행 중
 - * 핵심·중요 시설(489개) 등 철도시설 91.3% 내진성능 확보 완료

2.4

편리하고 쾌적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

① 코로나-19 환경변화를 고려한 예방적 철도시설 개선

- 철도역 승하차 동선 분리를 통해 혼잡도 개선 및 접촉 최소화
 - 기존역 지능형 승객유도 시스템 등 스마트 역사화 추진
 - * 실시간 통행량을 반영한 혼잡도 제공 및 우회경로 안내 등
 - 신설역은 구조적으로 동선 분리 검토(이천~문경 충주역사 등)
- 철도와 대중교통 간 직접 환승체계 도입 등 이동 동선 최적화
 - * 운천역 설계 시 철도-버스 간 직접 환승체계 시범 도입(~'21.9)

② 역사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

- 이용객 증가 및 시설 노후 역사 증·개축 추진
 - * 전주역('19.1~'24.6), 천안역('18.12~'24.4), 행신역('18.12~'21.12) 증개축
 - * 신태인역('18.3~'20.8), 두정역('18.6~'23.12), 외대앞역('19.2~'21.12) 출입구 신설 등
- 역사 승강설비(E/S, E/V) 확충 및 홈 대합실 등 지속 확충
 - * 총 3,314개소 중 '20년 333개소 설치(누계 1,305개소 39.4%)

③ 철도 이용객 안전 및 미세먼지 관리 강화

- 신규 광역철도 급행 정차 15개역 승강장 안전문(PSD) 확충
 - * 춘천역 등 6개 역사 '20.12월 완료, 금천구청역 등 승강장 보강 필요 9개 역사 '21년 완료
- 쾌적한 철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도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
 - 인덕원~동탄 등 신규 지하역사에 스마트 공조 시스템 도입 추진('20.11)
 - * 운영중 지하역사(백석역 등 38개 역사) 공기조화설비도 단계적 개량

3.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 철도시장 적극 진출

3.1 400km/h급 초고속 철도시스템 구축

① 교통산업의 새로운 혁신 모멘텀 선도를 위한 초고속 철도시스템 추진

- 초고속철도 추진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준비단(TF) 발족
 - 노반·궤도·신호·통신 등 17개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('20.4)
 - * 국토교통부, 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추진역량 집중
- 초고속 철도시스템에 적합한 기술성능 정립 등 제반기준 마련
 - 노반분야 터널 단면적, 선로 중심간격 등 시설 기준 검토
 - * 「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」에 400km/h급 고속철도 기준 마련('20.7)
 - 궤도·전차선·신호 등 시스템분야는 분야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등 “한국형 초고속 시스템” 기준 정립
 - *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및 무선통신시스템 400km/h급 사용개시 절차 마련

② 초고속 철도시스템 상용노선 시범구축 추진

- ‘평택~오송 2복선’ 사업에 400km/h급 노선 반영('20.12)
 - 노반분야 공사 발주 등 초고속철도 상용노선 구축 착수
 - 신호시스템 성능검증 절차 및 KTCS-2/ATP 병행설치 세부계획 마련
 - * KTCS-2: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, ATP: 열차 자동방호장치
- 상용노선 운영 등 기술 고도화로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수출 기반 마련
 - * 철도건설, 시스템, 차량제조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촉매역할 기대

① 중대형 해외철도시장 수주활동 강화 및 전략적 진출 추진

- PM/설계 및 감리(PMC) 수주 확대로 한국기업 진출기반 구축
 - 인도, 페루, 이집트 등 PMC용역(13건) 전략적 입찰 참여
 - * 인도 수도권급행철도 사업자문 용역/ 인니 자카르타 LRT 운영 역량강화사업 수주('20.2)
 - * 태국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PMC 용역(220km, 1,560억원) 수주('20.4)
 - * 필리핀 마닐라 LRT-2 화재 복구 PMC(16억원) 계약체결('20.8)
-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로 Team Korea PPP사업 수주
 - 국내 민간 건설기업, 재무투자자, 회계법인 등과 Team Korea 구성하여 기존선 속도향상, 기술이전 등 국가별 맞춤형 제안
 - * 터키 고속철도 사업(143km) 및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여객철도사업(84.9km) 추진
- 몽골 철도건설 지원 등 협력을 바탕으로 철도사업 수주 가시화
 - 타반톨고이~준바얀 철도 개통(414km, '20.12) 기술지원, 타반톨고이 광산 인입철도(64km) 설계·감리 및 울란바토르 경전철 참여 추진
 - * 코트라와 몽골철도학교 운영('20.10.) 및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등 인력양성 지원

② 국제교류 활성화 등 민간기업 해외진출 길라잡이 역할 강화

- 해외 발주처 협력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마케팅 전개
 - * GICC(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), 글로벌 석사과정 등
- 거점별 해외지사 확대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
 - * 5개국(중국, 몽골, 인도, 인니, 태국) → 7개국(터키, 코스타리카 추가) 예정
- 중소기업 철도용품 국제인증사업 확대로 해외시장 진입장벽 제거
 - * 지원규모: ('18년·'19년) 5억원 → ('20년) 10억원 → ('21년) 20억원(예정)

4. 철도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

4.1 철도교통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

① 철도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역세권 개발 추진

- 수서 역세권은 업무·상업·주거 기능 공간으로 개발

* 상업지구, 행복주택 단지조성('19년~'22년) 및 본격 토지 분양('21년) 준비

- 신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지속 시행

* 안중역세권·춘천역세권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

② 철도역 중심 연계 교통 환승센터 등 복합개발 추진

-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는 인허가 후 착공 추진('21.上)

-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('20.12)

- 철도 유휴부지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등 개발부지 발굴('20.11)

* 신규 개발대상지 홈페이지 공개 및 사업설명회 개최

③ 철도역의 지역문화 중심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

- 모든 철도역(650여개)에 지역의 유래와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 창출

- 주요 100개역 탐방 가이드북 발간 및 400여개역 스토리보드 설치('20.12)

- 지역문화, 관광자원을 담은 전국 철도역 스토리텔링 북 발간('21.5)

4.2

철도 유휴자산의 공익적 활용으로 사회가치 창출

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

- 주요 거점역에 벤처·창업기업 사무/회의공간(스타트업 라운지) 구축('20.11)
 - * 서울 공덕역, 대전역, 부산 벡스코역 3개소 우선 구축, 추가개소 지속 발굴
- 철도이용 직장인 대상 어린이집 신설로 육아부담 및 출산율 해소 기여
 - * '19년 1개소(평내호평역), '20년 3개소(지자체 공모, 행신·탄현·여주역)
-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철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
 - * 소상공인 약 433명 임대료 3% → 1% 인하('20.4월 ~ '20.12월)
 - * 중소기업 약 566명 임대료 5% → 3% 인하('20.8월 ~ '20.12월)

② 폐역·폐선부지 최적 활용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력 창출

- 舊해운대역은 지자체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개발계획 수립('20.12)
- 舊 동해남부선 미포~송정(4.8km)은 스카이 캡슐 등 관광시설 운영개시('20.10)
- 舊 안동역·포항역은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개발 추진
-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확대(28 → 32개)
 - * 지자체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창의적 활용 컨설팅 시행('20.9)

③ 국유재산관리 최고기관 도약을 위한 재산관리시스템 개선

- 자산정보(DB) 및 지리정보(GIS)를 연계한 재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
 - * 철도재산 정보 통합 및 기재부, 국세청 등 행정정보 연계 구축('20.7 ~ '22.6)
- 「철도재산 국민활용 플랫폼」 개발하여 유휴재산 공개·활용도 제고
 - * 임대·매각·개발 가능부지, 사용허가 입찰, 지적도면·사진·동영상 등 정보제공

5.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

① 예산 적기집행 등 경제 활력 및 좋은 일자리 창출

- 사업비 이월 Zero 노력을 통한 집행률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
 - * '20년 상반기 56,390억원 중 63.2% 집행, 목표대비 959억원(1.7%p) 초과 집행
- 철도유휴부지 활용, 기술연구개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
 - * 우수 구직자(설계공모 입상자)와 양질의 일자리(철도건축협회 회원사) 간 연결 등

②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등 철도건설분야 활력 선도

- 협력사 간담회 등 VOC 수집, 하도급 분야 등 불공정 관행 개선
 - * 공정경제 활성화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('20.1) 및 55건 개선 추진중
- “기업활력시스템” 구축 및 “기업성장 응답센터” 설치('20.10) 등 협력·중소기업 보호 강화
 - * 동반성장 협력펀드 확대(100→200억원)로 코로나-19 극복 지원(58개 기업 저리 대출 중)
- 건설현장 “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” 구축 등 근로여건 개선
 - *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 고도화('20.12)
 - * 계획수립 시 적정 사업기간 반영('20.3) : 작업일(25→22일/월), 야간작업 미반영 등

③ “3-ZERO 운동” 등 조직문화 혁신 및 고도화

- 사고·부패·이월 제로 운동을 협력기업까지 공감대 확산 등 boom-up
 - * 3-ZERO의 날 운영, 계약자 사업관리시스템, 오프라인 등 다각적 콘텐츠 활용
- “무엇을 도와드릴까요?” 활동을 통한 고객 감동 및 협업문화 정착

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

